

요코테 전통의 본덴(梵天) 행렬

본덴 행렬은 요코테의 눈 축제 마지막 날인 2월 17일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본덴은 나무 작대기 끝에 거대하고 정교한 머리 장식이 달린 것입니다. 이날 본덴을 짊어진 남자들의 행렬이 요코테 시청 앞에 집결합니다. 거기서부터 남동쪽으로 3.5km 떨어진 아사히오카야마 신사를 향해 천천히 행진합니다. 남자들이 신사의 문에 도달하면 먼저 경내에 들어간 남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상황은 본전에 가까워질수록 격렬해지며, 무게가 30kg에 달하는 본덴 대부분이 너털너털해집니다. 본전에 도달한 이들 무리는 각자 한 해의 안전과 풍작,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덴에 늘어뜨린 천 '사가리'를 봉납하고 대신에 부적이 되는 '오후다'를 받습니다. 참가자들은 오후다를 자신의 고장이나 회사에 들고 가서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본덴 콩쿠르

본덴을 신사에 봉납하기 전날에는 본덴의 완성도를 심사하는 콩쿠르가 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주민 자치회나 각 사업소의 참가를 장려하지만, 본덴의 몸통이나 장식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져야 합니다. 작대기의 높이, 가장 위에 있는 머리 장식까지의 높이, 작대기에서 늘어뜨린 천(사가리)의 길이, 더 나아가 장식인 하치마키(머리띠)의 색과 굵기, 꼬는 방향까지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가이드라인 대로 만들어야 하지만, 장식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지나 새해 장식을 모티브로 한 전통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인기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현대적인 디자인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거대한 본덴 40개가 시청 앞에 늘어선 눈 축제에 방문한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본덴과 함께 봉납하는 에비스다와라(짚으로 만들고 장식한 쌀가마)나 아이들이 만든 소형 '고와카본덴'도 늘어서 있습니다.